

코로나 직격탄...광주시, 지역 관광업계 구하기 나선다

여행업체 대상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관광사업체 전체로 확대 추진 11월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연말까지 연장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관광업계에 구하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광주 관광업의 회복 지원을 위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의 범위를 관내 관광사업체 전체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업계 전반에 피해가 큰 만큼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금 신청기간을 10월에서 11월로 연장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광주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전체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여행업체의 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사업 확대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주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홍보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은 광주 소재 여행업체 500여곳에서 관광사업체 650여곳으로 확대됐으며,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SNS) 제작비, 광고비, 홍보비, 배너·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신청업체가 비용을 선 지출하고 관련서식과 증빙자료를 갖춰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오는 30일까지 광주관광재단과 광주관광협회를 방문해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국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지원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지원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수화여행비, 홍보비, 여행조기할인 상품 지원 등이다. 교통비는 20인 이상 버스 이용

관광객 유치 시 50만~120만원까지 지급하며, 4인 이상 기차·항공편 이용 관광객 유치 시엔 1인 교통비 2만~3만원을 지원한다. 숙박을 하면 1인 1만원과 1인당 식사비 10% 정도를 지불금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광주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업체에 대해선 최대 50만원씩 업체당 3회 홍보비를 지원하며,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에는 1인당 무박시 5000원, 숙박시 8000원을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여행업협회가 주관하는 여행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관광상품은 광주시가 사업비의 10%를 지원한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사·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국내관광객 인센티브 확대 지원이 광주 여행시장 조기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많이 침체돼 있지만 관광업계가 새로운 틈새를 개척해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전략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020년 11월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광주일보사와 최진석(사단법인 새마을서점 이사장)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11월의 책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선정됐습니다. 노벨문학상과 풀리처상을 수상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홀로 정체,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조명한 작품입니다.

<관련 기사 16면>

"오늘은 자신이 있다" "죽기까지 싸워라"
겉모양만 다듬는 투쟁으로는 진짜처럼 살기 어렵다.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잡이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기잡이는 아니더라도 긴 시간 자신의 삶이 팍팍하고 이론 것 하나 없다는 느낌에 허탈한 땀을 매일 도는 사람도 있다. 84일째 되는 날 아침, 바다로 나가기 전에 노인은 "오늘은 자신이 있다"고 중얼거리며 또 배를 탄다. 팍팍하게 지쳐가는 당신, 아침에 집을 나서며 "오늘은 자신이 있다"고 중얼거리는 자신이 보이는가? "죽기까지 싸워라"는 문장을 자신의 고유한 호흡에 저장할 수 있는가? 삶은 투쟁이다. 겉모양만 다듬는 투쟁으로는 진짜처럼 살다가 어렵다. 겉모양이 아무리 깨끗해도 심장 가까워서 심장 안을 기웃거리는 그 무엇이 있다.

先州日報社

靑, 12개 차관급 인사...일자리수석에 광주 출신 임서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 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복합학과를 졸업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행시 32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희진 고용부 노

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 또 조달청장에 김경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영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이 각각 내정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해남시 '남파랑길' 개통식

전남 해남에서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을 잇는 '남파랑길(1470km)' 개통 선포식이 지난 30일 오전 해남군 송지면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명현관 해남군수 등 참석자들이 땅끝전망대에서 개통을 축하하고 알리는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남도문화와 해양 잇는 '남파랑길' 함께 걸어요"

해남 땅끝~부산 오륙도 1463km... 전남도 '해양콘텐츠로 부상할 것'

남도문화와 해양·섬 관광을 잇는 '남파랑길'이 지난 31일 개통돼 남해안을 잇는 블루투어 해양콘텐츠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문체부 주관으로 해남 땅끝마을 뱃섬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영록 전남지사, 민경석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윤재갑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조광영 전남도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한국관광공사의 남파랑길 사업 경과 보고와 기념사, 환영사, 축사, 남파랑길 축하의식 등이 진행됐다. 선포식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 한 남파랑길 걷기 행사도 이어졌다.

'남파랑길'은 '남쪽(南)의 쪽빛(藍) 바다'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으로 해남 땅끝에서 부산 오륙도까지 이어지는 1463km의 국내 가장 긴 탐방로다. 전남 구간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 9개 시군으로 이어져 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해파랑길에 이어 두 번째 개통된 이 길은 총 90개 구간으로 이뤄졌으며, 한려해상과 더불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이 어우러져 걷기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게 조성됐다.

특히 '남파랑길'은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남도문화길, 남도낭만길 등 5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됐다. '남도문화길'은 장흥에서 강진, 완도, 해남으로 이어진 구간으로 남도 유네스코문화유산과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남도낭만길'은 여수에서 순천, 보성, 고흥으로 이어진 구간으로 지역의 독특한 생태환경과 다도해를 따라 낭만을 체험할 수 있다.

'섬진강 꽃길'은 섬진강과 꽃 경관이 아름다운 하동부터 광양까지 구간이며, '한류길'과 '한려길'은 부산, 남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은 '남파랑길'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남파랑길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등 사업을 통해 매력을 극대화하고 구간별 모니터링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준비해왔다.

김 지사는 "남파랑길 개통식은 전남과 부산을 잇는 남해 블루투어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해남 땅끝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지역 성장 전략사업비 100억원과 땅끝꿈길랜드 조성사업비 50억원 등을 통해 남파랑길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판 뉴딜 전쟁

▶1면에서 계속

무안국제공항을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 광주·광주국제공항 이전과 함께 전남 서부권 지역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 공항 이전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한편,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 부품 및 정비 산업 클러스터 등의 뉴딜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시키고 상생을 통한 미래 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등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은 '이름만 국제공항'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수·광양항을 지역 뉴딜의 동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을 여수 박람회장과 연계해 재개발, 해양 관광의 메카로 조성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항 재개

발 사업이 지역 뉴딜 사업으로 지정되면 수정 계획 등을 통해 37조원이 투입되는 제4차 5차년도 뉴딜(2021~2030년)에 포함되는 것도 훨씬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산 북항은 기반시설 조성비 2조4221억원(정부 3362억원, 부산항만공사 1조8359억원, 부산시 2500억원)이 투입돼 2022년까지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또 인천내항도 인천항만공사를 주축으로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기반시설비 5003억원, 민자 5015억원을 투입, 해양문화도심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양항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디지털 뉴딜과 지역 뉴딜을 결합해 화물 하역부터 이송까지 항만작업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 동북아 중심 물류 항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메가시티 등은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견제하고,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책"이라며 "광주·전남이 이러한 분과를 추진해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온전히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개정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되고,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KoROAD 도로교통공단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2021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생!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정	장소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작성)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jnu.ac.kr)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공과대학 4호관 202호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 일시	2020. 12. 3.(목) 10: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의무지급제출공고)

주식회사 우림산업개발(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0년 10월 26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정보통신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사업 영영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11월 02일

"갑" 상호 주식회사 우림산업개발
소재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문로 8-2층 대표이사 김철현

"을" 상호 정진주식회사
소재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불성길 81 대표이사 김예은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김성철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입람표 2연번 4, 6, 11, 13, 21, 26, 33~43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승휘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68년 先州日報 先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